

반기문 UN 사무총장 수상 소감문

[제2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존경하는 오연천 총장님,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67번째 서울대 개교기념일을 맞아 동문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가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발전을 거듭하는 데는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열정, 그리고 높은 국제적 식견을 갖춘 오연천 총장님의 리더십과 동문 여러분들의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오늘 개교기념식을 맞아 부족한 저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데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여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후배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바쁜 일정으로 영상을 통해 감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로 23번째로 맞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1년은 한국이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한 해입니다. 91년 창설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과 한국과 UN의 역사가 모두 23번째 맞는 올해 사무총장으로로서 이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지금 국제 사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질적, 양적으로 차원이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도전들이 산재한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국제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 즉, “A better world for all” 을 건설하기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도전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파트너십은 우리 모두의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열정과 따뜻한 마음, 즉, “Passion and Compassion” 을 가진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지구촌 곳곳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요, 나눔은 성공의 완성”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후배 여러분들이 장차 이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지난달 하순 UN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호소하면서, 특히 2015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은 국제사회가 빈곤타파를 위해 설정한 ‘UN 세천년 개발목표’, 즉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목표년도로 설정한 해입니다. UN은3 앞으로 남은 기간 중 ‘MDGs’ 가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은 ‘MDGs’ 이후 국제 사회가 앞으로의 15년을 향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즉 ‘Sustainable Development’ 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개발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나눔으로써 지구촌을 다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UN은 기후변화 대처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식량, 물, 보건위생 등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과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총동창회장님, 교수님, 그리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저는 UN 사무총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수행하는 데 혼음도 아끼지 않으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으로서 국제 평화, 안전, 개발, 그리고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UN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UN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허락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